

## 한국 상담전문가의 역할과 직무 분석

최 윤 미<sup>†</sup>

강원대학교

연구자는 한국 상담전문가의 직무 영역을 (1) 심리상담/심리치료, (2) 지역사회 상담교육 및 예방, (3) 심리측정과 평가, (4) 기업체 자문과 교육, (5) 상담자 교육 훈련과 자문이라는 5개 영역으로 기술하였다. 이를 근거로 상담 기관, 초·중·고등학교, 대학의 관련학과 및 대학 내 상담소, 기업 상담소, 기업 및 컨설팅 회사, 종교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담자들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상담전문가들은 상담원/연구원(시간제 포함) 지위로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고 학력 수준은 대졸(96.5%) 혹은 석사 이상(81.6%)이 대부분이었으나 월 평균 소득 수준은 51-100만원(16.6%)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상담전문가들의 주 수행직무는 심리상담/심리치료였고 이 직무를 상담자 자신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상담자들이 경험하는 직무 스트레스 중 가장 큰 것은 사회의 인식 부족과 낮은 보수였다. 효과적으로 상담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수 교육내용은 대다수가 개인상담실습을 들었다. 그리고 상담전문가의 직무 내용이 국민의 정신 건강을 다루는 전문 분야인 만큼 엄격한 자격 관리와 함께 국가공인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주요어 : 상담전문가 직무 영역, 상담자의 역할, 상담전문가 현황, 상담자 직무 스트레스

---

최윤미는 강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음.

<sup>†</sup> 교신저자 : 최 윤 미, (200-701) 강원도 춘천시 효자 2동 192-1 강원대학교 학생생활원 학생상담부,  
전화 : 033-250-7197 E-mail : ymchoi@kangwon.ac.kr

현재 한국에서는 상담심리 분야 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상담자라는 용어가 널리 통용되고 있다. 심리 상담 장면 외에서는 일반적으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지식을 덜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정보제공(부동산 상담, 법률 상담 등)을 할 때 흔히 상담이라고 한다. 그러나 상담심리 분야에서 상담자 혹은 상담전문가라고 부를 때에는 이와 크게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상담심리 분야에서 의미하는 상담자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의 역할이 아니라 심리학적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담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건강이라는 삶의 영역에 도움을 주는 심리상담 혹은 심리치료의 대전제를 안고 있다.

상담전문가는 심리학적 전문가로서 일반적인 심리적 영역에서부터 세분화된 특수 분야까지 실제 상담 활동을 통하여 질 높은 심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이다. 상담전문가는 개인의 정서적·사회적·발달적인 측면에서 심리적 교육 활동을 하고 부적응을 예방하여 심리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인간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 조직과 구성원의 조화에 관심을 기울이며 대인관계 능력 향상과 교육·직업적 적응을 돕는다. 이를 위하여 상담전문가는 심리학 관련 이론과 방법, 절차를 사용함으로써 인간 행동을 관찰, 기술, 평가, 해석하고 부적응 행동을 수정한다. 상담전문가는 심리학적 이론과 연구 결과들을 실제 상담 업무 수행에 통합함으로써 내담자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우며 스트레스나 심신의 장애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위기를 극복하여 개인의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돕는다. 상담전문가는 개인의 심리 교육에 초점을 두고 문제가 발생한 후 일어나는 부적응의 해결 뿐 아니라 예방적 측면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상담전문가는 개인과

부부 및 가족, 집단, 조직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진 건전한 측면과 강점에 관심을 갖고 문화적인 문제, 생활양식의 문제를 포함하여 환경과 상황이 주는 영향, 발달과 기능에 미치는 직업이나 직무 환경의 영향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2). 그럼으로써 개개인이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에 직접적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한다.

미국에서는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이 ‘지역사회 건강법(CMHA)’을 인준함으로써 전국적 연계망을 갖춘 지역사회 정신건강 센터들이 생겨났고, 전문심리학자들이 이러한 기관에 취업하여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다(Roger & Stone, 2002). 미국의 경우 상담전문가 자격은 미국 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와 미국 상담학회(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에서 수여·관리하고 있다. 이 자격증은 국가의 공인화된(accredited) 자격증으로서,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에서는 상담과 임상을 통합하여 “전문심리학자(professional psychologist)”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전문심리학자의 교육 수준은 박사학위를 권장하며 지도감독자(Supervisor)의 감독 하에서의 2년 이상(1년은 박사과정 중에, 1년은 학위 취득 후) 수련을 요구한다. 그리고 각 주에서, 미국 심리학회에 의뢰하여 선발된 선발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미국의 박사급 전문심리학자는 약 35,000명 정도이고(Gelso & Fretz, 1998: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2에서 재인용) 주로 기업상담소, 대학 그리고 정신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그리고 산하 상담심리분과 내에서 관리하는 상담전문가, 학교상담전문가, 진로상담전문가, 그리고 약물중독 상담전문가, 부부 및 가족치료 전문가 등 특수분야에서의 석사급 자격증(license/certificate)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심리학적 지식에 기반을 두었다고 공인 받은 기관에서 2년간의 훈련을 받은 후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 심사를 통과하면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심리학자 제도는, 주나 국가의 공인 기관에서 주는 자격증을 갖추는 방법과 기관이나 취업 현장에서 특수 훈련을 받아 기술이나 지식이 획득되었다고 인정함으로써 공인화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공인을 해줄 수 있는 기관으로는 미국 상담학회라든지, 미국 심리학회, 미국 의학회, 법률학회(American Bar Association)등이다. 미국 상담학회에서는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이 분야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지식 영역으로 인간 성장과 발달, 집단 작업, 사회 문화적 배경의 이해, 심리측정, 연구와 프로그램 평가, 전문적 지향성, 진로와 삶의 양식의 발달, 인관 관계 향상 등에 관한 지식이며, 실무와 교육지도를 받은 경험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특수 영역에서 실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수 영역별 지식이 덧붙여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석사급 프로그램으로 포함되는 것은, 지역사회 상담, 진로 상담 영역, 부부 및 가족상담, 정신건강 상담, 학교 상담, 대학 상담이다. 그리고 박사급에게 요구되는 것으로는 상담자 교육과 교육지도에 대한 지식이다(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2002).

일본의 경우, 심리학 전공 박사 과정생 또는 석사과정의 졸업 후에 1년 이상의 심리 상담 경험이나 심리학 인접 분야 전공의 박사 과정생 또는 인접 분야 석사 졸업한 후 2년 이상의 심리 상담 경험을 가졌을 때, 의사 면허 취득자로서, 2년 이상의 심리 수련을 받았을 때, 4년제 대학에서 심리학 또는 심리학 인접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 후 5년 이상의 심리 상담 경험을 가

졌을 때 전문심리학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1999년 현재 일본에서는 15,000명의 인증된 전문심리학자가 활동하고 있다(한국산업인력공단, 2000).

독일의 경우, 전체적으로 전문심리학자를 석사급으로 규정하고 석사 수준 디플롬(Diplom) 심리학자의 80%가 전문심리학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최소 8학기 이상 상담수련 및 실습과정을 이수한 후 국가 시험에 합격하여 석사학위에 준하는 디플롬(Diplom)을 받은 사람이 전문심리학자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최근 독일에서는 적응력향상 지도 활동 등 상담 실무를 강조하는 적응력향상 지도 전문가제도를 입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적응력향상 지도 전문가는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여 심리학 디플롬을 취득한 후 3-5년 간 지도감독자의 감독 하에 적응력향상 지도 수련 과정을 이수하고 학회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격이다(독일 임상심리학회, 2000; 한국산업인력공단, 2000에서 재인용).

미국 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2a; 2002b; 2002c)에서는 국가 공인의 전문심리학자의 역할과 직무, 자격요건, 지켜야 할 윤리 등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미국의 전문심리학자 정의에 따르면, 상담전문가의 개입 절차와 기법은 내담자의 인지·감정·행동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심리적 고통의 예방으로부터 부적응적 증상의 경감과 해소에 이르기까지 적응력 향상을 위한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그 절차는 회기 제한의 상담으로부터 단기적·장기적 접근까지 모두 포함된다. 이들이 펼치는 전문적 활동의 대상 내담자 형태는 개인을 비롯하여 집단(부부와 가족 포함), 지역 사회 및 기업체이다. 그리고 활동 방식에 있어서는, 개인 면담 뿐 아니라 같은 문제를 지닌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그리고 개인의 기능과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실시하는 집단상담 방식이 포함된다. 대상 연령은 아동으로부터 청소년, 성인, 그리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친 연령층이 포함된다. 이를테면 행동 문제를 가진 어린이로부터 진로와 직업적 관심 혹은 비행 문제를 가진 청소년, 부부 문제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가족, 직업이나 진로 변경을 고려하는 혹은 부적응 상태를 극복하려는 성인층, 은퇴를 고려하는 노년층이 모두 전문심리학자의 역할을 통해 도움을 줄 대상이 된다. 또한 기업체 자문 역할을 통하여 개인이 직무 환경에서 최상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기업체의 작업 환경 변화, 생산성과 효율성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한다. 상담전문가의 업무와 관련된 방식에 있어서도, 직접 대면 활동 뿐 아니라 전자 메체나 전화 등 어느 수단을 통해서나 모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상담심리 분야에서 상담자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논의된 바가 없고 관련 연구도 전무하다. 한국의 상담전문가들은 이미 심리 상담 활동을 하면서 상담전문가로서 자신의 역할과 직무를 감지하고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뿐이다. 김계현(1995, pp.350-351)도 한국의 상담 교육은 문제 영역, 내담자 특성, 상담 장소 등을 고려한 상담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상담이 '전문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정신건강 문제, 성격문제, 교육·학습 문제, 진로문제, 직업적응 문제, 부부·가족문제와 신앙, 호스피스 등의 기타문제, 그리고 도(道) 혹은 해탈의 추구, 영성적 성장 등 성장육구 문제라는 여덟 가지 영역으로 상담의 적용 영역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현재까지 한국의 상담자 혹은 상담전문가가 분명하게

어떤 역할과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상담자가 다루어야 할 직무 영역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하여 기술되었거나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다.

따라서 상담자의 역할을 기술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미국 심리학회에서 기술한 전문심리학자 역할을 기초로 하여 한국 상담전문가의 직무 영역을 다음과 같은 5가지로 요약하였다. (1) 심리상담/심리치료, (2) 지역사회 상담교육 및 예방, (3) 심리측정과 평가, (4) 기업체 자문과 교육, (5) 상담자 교육 훈련과 자문이다. 이 영역 중 상담심리사(상담전문가 2급) 교육을 포함하는 (5) 상담자 교육지도와 자문 역할은 상담심리전문가의 직무에 한정된다.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에서는 상담전문가를 상담심리전문가(상담전문가 1급)와 상담심리사(상담전문가 2급)로 구분하고 있으며 상담심리전문가의 역할은 심리학적 전문가로서 위 5개 영역에서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담심리사는 상담심리전문가의 교육지도 하에 상담자 교육지도와 자문을 제외한 4개 영역에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상담전문가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직무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이 직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1) 심리상담/심리치료 영역: 부부 및 가족간의 문제를 포함하여 학교, 직장에서의 부적응과 대인관계 문제 등 대인관계의 개선과 기술 향상을 위한 활동, 진로 선택과 변경, 전직, 퇴직 등 교육적 성취와 학습 및 직업적 성취와 업무 적응을 위한 활동, 재난과 외상성 스트레스의 관리 및 위기 개입, 정서·성격적 기능장애와 심리적 문제의 개선, 신체적 질환이나 사고로 인한 신체적 손상에서 파생되는 심리적 문제와 적응을 돕기 위한 활동, 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 중독 등 물질이나 과정중독 및 습관과 행동 장애의

개선, 스트레스 관리와 대응, 기타 개인적·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한 활동이 포함된다. (2) 지역 사회 상담교육 및 예방 영역: 건전한 가족 관계 수립을 위한 가족 대화 훈련 등 심리 교육, 건전한 교육환경 마련을 위한 정신건강 교육과 자문, 각종 물질 의존 및 중독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수립과 실시, 가정 폭력, 성폭력, 비행 등 각종 사회문제의 예방 프로그램 실시와 교육이 직무에 포함된다. (3) 심리측정과 평가 영역: 정상인들의 비병리적(非病理的)인 대인관계 특성, 경력 개발을 위한 심리적 내용의 평가와 측정, 교육 장면에서의 학습문제, 진로지도 등을 위한 지능, 성격, 능력, 흥미, 적성 등 개인적 특성의 평가와 측정, 자아실현이나 자기 개발 등을 위한 새로운 심리 측정도구 개발, 부적응과 이상 행동의 평가와 측정, 조직과 개인의 관계 특성 평가 등이 포함된다. (4) 기업체 자문과 교육: 조직내 문제 진단, 직무 만족도, 조직 생산성 등 조직 활성화를 위한 자문활동, 조직 내 대인관계 향상, 고충 처리, 인사 관리 업무 효율화를 위한 업무 담당자 교육 등이 포함된다. (5) 상담자 교육훈련과 자문: 상담심리사의 교육훈련, 상담 현장 실무자, 즉 상담 교사, 산업체 고충 처리담당자들의 상담 업무교육, 상담 실무자들의 사례 지도와 자문 등의 추수 교육, 상담전문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 교육 등의 직무가 포함된다.

현재 한국의 심리 상담 분야에서는 어떠한 방식이든 상담자의 직무 영역이 기술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상세한 직무 현황도 파악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리 상담 영역에서 한국 상담자의 역할과 직무 영역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이 직무영역을 기초로 설문조사를 통한 상담자의 직무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담자들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상담전문가 직무의 기초 자료가

마련되면 상담전문가들은 정체감을 가질 수 있고, 학회에서 수여하는 상담전문가 자격증의 국가공인화 추진시에 상담전문가 직무 규정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상담자 직무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참여자는 상담 기관(11.4%), 초·중·고등학교(6.9%), 대학의 관련학과 및 대학 내 상담소(42.3%), 개업 상담소(8.0%), 기업 및 컨설팅 회사(18.9%), 종교기관(5.1%), 사회복지시설(3.4%), 병원을 포함한 기타 기관(4.0%)의 상담관련 업무 종사자들이었다. 이들의 기관 내 지위는 전일제 상담원/연구원(26.9%), 시간제 상담원/연구원(13.1%), 일반 기업체 직원과 기타(14.9%), 그리고 교수(12.6%) 등이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학력 수준은 학사 이하(3.5%), 학사(14.9%), 석사과정생을 포함한 석사(48.6%), 박사과정중(15.4%), 박사학위 소지자(17.7%) 등이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연령분포는 23-64세(평균 37세)였고, 남자가 23.4%, 여자가 76.6%이었다. 상담분야 종사 기간은 최단 1개월에서 최장 38년 사이(평균 7년 10개월)이었다.

### 측정도구

상담전문가의 직무 규정을 위하여 위에 기술한 5개 직무 영역을 포괄하는 직무 현황 및 수요 조사 연구 설문지를 본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직무 현황 및 수요 조사 연구 설문지는 연구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수행 직

무(주 수행직무, 중요도, 전망, 직업전망), 직무 스트레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요건(지식 및 성격, 능력특성, 보수교육 내용, 수련기간) 및 기타 자격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언에 관한 내용 12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자료수집

연구자가 제작한 직무현황 및 수요조사 설문지는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 12월 월례회 참석자와 기업체와 컨설팅 회사, 상담관련업무 종사자들에게 2002년 12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배포하였다. 이 중 190명의 설문지가 수집되었고 이 중 불성실하거나 중도 포기한 15부를 제외한 175부가 조사 분석에 포함되었다.

결 과

한국 상담자들의 현황

주 종사 기관

표 1에 나타난 바를 보면, 본 연구 대상에 포함된 상담자는 가장 많은 인원이 대학의 관련

학과나 대학 내 상담소(42.3%)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체와 컨설팅회사(18.9%), 청소년상담기관(11.4%), 개업 상담소(8.0%), 초·중·고등학교(6.9%), 종교기관(5.1%), 기타(4.0%), 사회복지시설(3.4%)의 순으로 종사하고 있었다. 근무 기관별로 상담전문가 자격증 소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상담심리전문가 소지자(상담전문가 1급)는 대학의 관련학과 및 대학 내 상담소(73.6%)에 근무하고 있는 이들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청소년 상담기관(7.5%), 개업상담소(5.7%)와 초·중·고등학교(5.7%)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심리사(상담전문가 2급) 자격증 소지자들 역시 대학의 관련학과 및 대학 내 상담소(33.8%) 근무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 상담기관(20.6%)에, 그 다음으로는 기업체(17.6%)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담심리사 소지자들은 종교기관을 포함하여 모든 기관에 고루 분포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상담심리전문가는 종교기관을 제외하고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어느 기관에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느 기관에서 근무하던 상담 관련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상담심리사 정도의 자격을 요구한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표 1. 주 종사기관(%)

	청소년 상담기관	대학관련학 과/상담소	개업 상담소	초·중· 고등학교	사회복지 시설	종교 기관	기업체	기타
상담심리전문가 (N=53)	7.5	73.6	5.7	5.7	3.8	-	1.9	1.9
상담심리사 (N=68)	20.6	33.8	7.4	2.9	2.9	8.8	17.6	5.9
기타 (N=21)	9.5	28.6	9.5	9.5	9.5	4.8	23.8	4.8
없음 (N=33)	-	18.2	12.1	15.2	-	6.1	45.5	3.0
전체	11.4	42.3	8.0	6.9	3.4	5.1	18.9	4.0

**종사 기관에서의 지위**

본 연구 참가자들의 기관 내 지위는 전일제 상담원/연구원(26.9%)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반 기업체 직원(14.9%), 시간제 상담원/연구원(13.1%), 그리고 교수(12.6%)순이었다. 이는 상담 기관에서는 주로 전일제 상담원/연구원 직책이나 시간제 상담원/연구원으로 근무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자격증 소지별로 종사 지위를 살펴보면, 상담심리전문가 소지자(상담심리전문가)의 경우는 교수(37.7%)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교수의 중요 업무 중 하나가 상담 교육이므로 상담 관련 학과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상담심리전문가 자격증 소지가 필수적임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상담심리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는 전일제 상담원/연구원(28.3%)의 직책이 많았고 이는 상담심리전문가 정도의 자격을 갖추면 전일제 상담원/연구원 정도의 지위는 주어지는 것을 반영한다. 상담심리사 소지자(상담심리사)의 경우, 전일제 상담원/연구원(33.8%)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수련과정과 시간제 상담원/연구원이(각각 16.2%) 많았다. 즉, 상담심리사 자격은 대체로 상담원/연구원의 지위로 취업이 되며 시간제 상담원으로 종사하기 위해서도 이 자격 조건이 요구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력수준**

상담분야 종사자들의 학력 수준(표 3)은 전체적으로 석사과정생을 포함한 석사학위 소지자(48.6%)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박사(17.7%), 박사과정중(15.4%)이었다. 박사과정을 포함한 박사학위 소지율(33.1%)과 석사과정 포함 석사학위 소지율을 모두 합해볼 때 석사 이상의 학력이 81.7%에 달한다. 상담심리전문가의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49.1%)가 가장 많았고 상담심리사의 경우는 석사학위(과정 포함) 소지자(67.6%)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상담기관 종사자(85.0%)와 개업상담소 종사자(50%)의 경우, 석사 학위급(석사과정중 포함)이, 대학의 상담 관련 학과 및 대학 내 상담소 종사자들의 경우는 박사학위급(35.1%)이 가장 많았다.

**소지 자격증**

상담자들이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으로는 상담심리사(수련생 포함) 자격증 소지율이 가장 높았고(38.9%) 그 다음으로 상담심리전문가(31.4%) 소지율이 높았다. 그 외에 학교상담사, 인간관계훈련지도사, 직업상담사, 놀이치료사, 상담심리사

표 2. 종사기관에서의 지위(%)

	자원 봉사자	수련과정	일반기업 체직원	전일제 상담원/ 연구원	시간제 상담원/ 연구원	교수	사설 상담실 소장	기타
상담심리전문가 (N=53)	1.9	5.7	1.9	28.3	11.3	37.7	5.7	7.5
상담심리사 (N=68)	7.4	16.2	14.7	33.8	16.2	1.5	2.9	7.4
기타 (N=21)	-	14.3	19.0	23.8	19.0	-	4.8	19.0
없음 (N=33)	15.2	9.1	33.3	12.1	6.1	3.0	-	21.2
전체 (N=175)	6.3	11.4	14.9	26.9	13.1	12.6	3.4	11.4

표 3. 상담분야 종사자의 학력수준(%)

		고졸 이하	대학 재학	대학 졸업	석사 (석사과정)	박사과정	박사
자 격 증	상담심리전문가 (N=53)	-	-	3.8	18.9	28.3	49.1
	상담심리사 (N=68)	4.4	1.5	11.8	67.6	10.3	4.4
	기타 (N=21)	-	-	19.0	57.1	14.3	9.5
	없음 (N=33)	6.1	-	36.4	51.5	6.1	-
종 사 기 관	청소년 상담기관 (N=20)	-	-	-	85.0	10.0	5.0
	대학학과 및 대학내상담소 (N=74)	-	-	4.1	33.8	27.0	35.1
	개업상담소 (N=14)	-	-	21.4	50.0	14.3	14.3
	초·중·고 (N=12)	-	-	8.3	91.7	-	-
	기업체 (N=33)	15.2	3.0	48.5	27.3	6.1	-
	기타 (N=22)	-	-	13.6	72.7	4.5	9.1
	전체 (N=175)	2.9	0.6	14.9	48.6	15.4	17.7

(인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의 관련 학과 및 대학 내 상담소에 근무자 대부분은 상담심리전문가(54.1%)와 상담심리사(31.1%)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85.2%가 상담심리전문가 혹은 혹은 상담심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임상심리전문가

나 임상심리사, 청소년지도사 등의 자격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상담기관 종사자들은 상담심리사(70.0%) 소지 비율이 월등히 높긴 했으나 상담심리전문가(25.0%) 자격증 소지율도 높아, 대부분(95.0%)이 상담전문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갖추기 위

표 4. 상담분야 종사자의 소지 자격증(중복응답 %)

		상담심리사 (또는 수련생)	상담심리전문가 (또는 수련생)	임상 심리사	임상심리 전문가	청소년 지도사	기타
종 사 기 관	청소년 상담기관 (N=20)	70.0	25.0	-	-	-	15.0
	대학 (N=74)	31.1	54.1	8.1	2.7	2.7	12.2
	개업상담소 (N=14)	35.7	21.4	-	-	-	58.3
	초·중·고 (N=12)	35.9	21.4	-	-	-	58.3
	기업체 (N=33)	16.7	25.0	-	-	-	60.6
	기타 (N=22)	54.5	13.6	4.5	-	4.5	31.8
	전체 (N=175)	38.9	31.4	4.0	1.1	3.4	28.6



해 수련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

상담분야 종사자의 월 평균 소득 수준은 51-100만원(16.6%)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301만원 이상(14.3%), 그리고 151-200만원과 201만원-250만원(각각 1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51-100만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대부분이 대졸 이상(96.5%)의 학력 수준이며 석사과정 포함 석사 학위 이상(81.6%)의 학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임금 수준이다.

한편, 상담심리전문가의 경우 월 평균 소득 301만원이상(34.0%)이 가장 많고 이어서 201-250만원(17.0%), 그 다음으로 251-300만원(13.2%)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월소득 151만원 이상이 75.5%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상담심리사의 경우는 월소득 51-100만원(23.5%) 비율이 가장 많고 101-150만원(19.1%), 151-200만원(13.2%)의 순으

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무급과 50만원 이하라는 응답자 비율도 각각 11.8%였으므로 50만원 이하 혹은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이 23.6%나 되었다.

물론 자격증 소지 여부는 종사 기관이나 기관 내에서의 지위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종사기관 별로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청소년상담기관(45.0%)과 개업상담소(28.6%) 종사자의 경우 101-150만원이 가장 많았고, 대학의 경우는 301만원 이상(21.6%), 초·중·고등학교의 경우는 201-250만원(33.3%), 기업체의 경우 151-200만원(27.3%) 기타 기관의 종사자들은 51-100만원(31.8%)의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청소년 상담기관의 경우 무급으로부터 150만원까지의 소득 수준, 즉 150만원 이하 소득이라는 응답자가 85.0%에 달하여 대다수가 150만원 이하의 급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관련학과 및 대학 내 상담소 종사자들의 경우, 301만원이상의 소득 수준(34.0%)이 가장 많

표 5. 상담분야 종사자의 소득 수준(%)

	무급	50만원 이하	51-100만원	101-150만원	151-200만원	201-250만원	251-300만원	301만원 이상	
자 격 증	상담심리전문가 (N=53)	3.8	3.8	11.3	5.7	11.3	17.0	13.2	34.0
	상담심리사 (N=68)	11.8	11.8	23.5	19.1	13.2	11.8	5.9	2.9
	기타 (N=21)	9.5	14.3	28.6	14.3	9.5	4.8	9.5	9.5
	없음 (N=33)	12.1	9.1	3.0	12.1	21.2	18.2	15.2	9.1
중 사 기 관	청소년 상담기관 (N=20)	10.0	10.0	20.0	45.0	5.0	5.0	5.0	-
	대학 (N=74)	5.4	12.2	18.9	6.8	12.2	13.5	9.5	21.6
	개업상담소 (N=14)	21.4	7.1	14.3	28.6	7.1	-	7.1	14.3
	초·중·고 (N=12)	8.3	-	-	-	25.0	33.3	25.0	8.3
	기업체 (N=33)	3.0	3.0	6.1	6.1	27.3	21.2	15.2	18.2
	기타 (N=22)	22.7	13.6	31.8	13.6	4.5	9.1	4.5	-
전체 (N=175)	9.1	9.1	16.6	13.1	13.7	13.7	10.3	14.3	

고, 151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자가 57.8%에 달했으나 그 반면에 무급을 포함하여 100만원 이하라는 응답자 비율도 36.5%에 달해 지위 수준이 천차만별이 만큼 소득 격차도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득의 양극화 현상은 개인 상담소 종사자의 경우도 비슷한데, 가장 많은 응답율은 101-150만원(28.6%)이었으나 301만원 이상(14.3%)과 51-100만원(14.3%) 응답자 비율이 동일했다. 그러나 초·중·고등학교 종사자(91.6%)와 기업체(81.9%) 종사자 대부분은 151만원 이상의 소득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들 기관이 상담 분야 종사자에게 일정액 이상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있는 곳이었다.

### 직무분석

#### 상담전문가의 주 수행 직무와 직무 중요도 및 직무전망

상담전문가가 수행하는 다섯 가지 직무 영역(심리상담, 지역사회 상담교육 및 예방, 심리측정과 평가, 기업체 자문과 교육, 상담자 교육지도와 자문) 가운데 자신이 각 영역에 투자하는 시간과 직무 중요도 및 직무 전망의 순위를 알아본 결과가 표 6이다. 이를 살펴보면 다섯 가지 상담전문가의 직무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직무는 심리상담(61.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직무는 기업체 자문과 교육(11.1%)이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직무는 상담심리전문가(64.2%)와 상담심리사(63.6%)가 모두 심리상담으로서 자격증 등급간에 주 수행 직무 1순위 직무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많은 시간이 투자되는 2순위 직무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상담심리전문가는 상담자 교육지도와 자문(20.8%), 상담심리사는 지역사회 상담교육

및 예방(12.1%)과 기업체 자문과 교육(12.1%)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상담전문가의 5개 직무 영역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직무 순서를 알아본 결과 상담심리전문가와 상담심리사 모두 소지 자격증 등급 여부와 관계없이 심리상담(78.4%)을 가장 중요한 직무로 꼽았다. 이는 기타 자격증 소지자(76.2%)들이나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71.9%)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상담 업무가 현장에서 매우 중요하며 또 직무 수행에 실제로 많은 시간을 투여할 만큼 수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중요도에 대한 응답률이 투자 시간에 대한 응답률보다 높은데, 이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은 시간투자를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상담심리전문가의 경우는 심리상담 다음으로 상담자 교육지도와 자문(15.1%)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상담심리사는 지역사회 상담자 교육 및 예방(10.8%)을 중요한 직무라고 응답했다. 이는 수행직후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직무가 동일함을 반영한다.

상담전문가의 직무 전망에 대해서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간의 양과 직무의 중요도에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상담전문가 직무 중에 전망이 가장 좋은 것 역시 심리상담(54.6%)이지만 응답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를 자격증 소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상담심리전문가의 경우 심리상담(64.2%)을 전망이 좋은 직무 1순위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시간 투자양과 직무 중요도에서 상담자 교육지도와 자문이라고 응답한 것과는 다르게 기업체 자문과 교육(15.1%) 영역이 직무 전망이 좋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상담자 교육지도와 자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전망이 좋은 영역은 기업체 자문과 교육일 것으로 내다보는 것이다. 이

표 6. 상담전문가의 주 수행 직무와 직무 중요도(1순위 응답/%)

		심리상담	지역사회 상담교육 및 예방	심리측정과 평가	기업체 자문과 교육	상담자 교육지도와 자문
주 수 행 직 무	상담심리전문가	64.2	9.4	5.7	-	20.8
	상담심리사	63.6	12.1	10.6	12.1	1.5
	기타	61.9	4.8	9.5	14.3	9.5
	없음	51.6	12.9	6.5	25.8	3.2
	전체	61.4	10.5	8.2	11.1	8.8
직 무 중 요 도	상담심리전문가	81.1	3.8	-	-	15.1
	상담심리사	80.0	10.8	1.5	4.6	3.1
	기타	76.2	4.8	-	14.3	4.8
	없음	71.9	-	6.3	15.6	6.3
	전체	78.4	5.8	1.8	6.4	7.6
직 무 전 망	상담심리전문가	64.2	13.2	1.9	15.1	5.7
	상담심리사	58.8	14.7	-	22.1	4.4
	기타	35.0	20.0	10.0	35.0	-
	없음	42.4	15.2	9.1	27.3	6.1
	전체	54.6	14.9	3.4	22.4	4.6

러한 경향은 상담심리사도 마찬가지였는데 상담심리사 자격증 소지자들도 가장 전망이 좋은 직무로 심리상담(58.8%), 그 다음으로 기업체 자문과 교육(22.1%)을 꼽았다. 한편 기타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심리상담과 기업체 자문과 교육을 같은 비율(35.0%)로 전망이 좋은 직무로 꼽았는데 이는 일반 기업체 종사자들이 상담 기관 종사자들과는 다르게, 일선 현장에서 바라보는 직무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일반 기업체에서 상담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기업체 종사자들은 기업체에서도 상담 관련 업무에 대한 수요가 많음을 반영한 응답으로 해석된다. 이는 상담전문가의 직무 중 앞으로 기업체 자문과 교육 직무의 전망이 밝고 기업체 현장에서의 수요도

많다는 것으로 추측된다.

#### 상담 기관 별 직업 전망

상담전문가의 활동 전망이 매우 밝은 것을 5점, 매우 어두운 것을 1점으로 하여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전망이 좋음을 의미하도록 5점 척도 상에서 기관별 직업전망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상담전문가들이 활동할만한 기관으로는 각종 청소년상담기관, 사회 복지관, 청소년수련원, 영·유아교육기관, 초·중·고등학교, 대학의 관련학과 및 대학 내 상담소, 개업상담소, 종교단체, 기업체, 교정기관, 시민단체 등이 포함되었다. 그 결과, 각종 청소년상담기관, 대학의 상담관련학과 및 대학 내 상담소, 개업 심리상담기관(평균

표 7. 상담활동영역의 전망(평균/점)

	상담 기관	복지관	청소년 수련원	영유아	초· 중·고	대학	개업	종교	기업체	교정 기관	시민 단체
자 격 증	상담심리전문가	4.2	3.6	3.5	3.3	3.9	3.9	4.1	3.8	3.8	3.2
	상담심리사	3.7	3.5	3.4	3.4	3.6	3.9	3.9	3.4	3.8	3.1
	기타	3.8	3.9	3.2	3.8	3.2	3.7	3.6	3.7	3.9	3.2
	없음	3.8	3.8	3.7	3.6	3.9	3.9	3.7	3.7	4.0	3.5
전체	3.9	3.6	3.4	3.4	3.8	3.9	3.9	3.6	3.8	3.7	3.2

3.9점)에서의 전망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시민단체(평균 3.2점)에서의 전망이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자격증 소지 등급별로 살펴보면, 상담심리전문가들은 각종 청소년상담기관의 전망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상담심리사들은 대학의 상담 관련학과 및 대학 내 상담소, 개업 상담소가 가장 전망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기타 자격증 소지자들은 복지관과 기업체(각각 평균 3.9점)를, 상담관련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은 기업체(평균 4.0점)를 가장 전망이 좋은 기관일 것으로 응답했다.

#### 상담전문가의 직무 스트레스

상담자들이 현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 표 8이다. 직무 스트레스는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는데 점수가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표 10). 전체적으로 상담분야의 종사자들은 낮은 보수와 상담에 대한 사회의 인식 부족(각각 평균 2.2점)으로 인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지위, 불투명한 미래, 전문추수 교육비용의 부담(각각 평균 2.3점)으로 인한 스트레스 역시 높게 나타났다.

이를 자격증 등급에 따라 분석해보면, 상담심리사(상담심리사)의 경우 낮은 보수, 상담에 대한 사회의 인식부족, 불투명한 미래(각각 평균 2.0점) 요인에서 직무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다. 반면 상담심리전문가들은 상담에 대한 사회의 인식 부족(평균 2.2점)으로 인하여 직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교육의 시간적 부담과 과도한 상담 외 업무,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지위(각각 평균 2.4점) 등이 중요한 직무 스트레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심리전문가와 상담심리사 모두 상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불안정한 고용 및 낮은 지위에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지만, 상담심리전문가의 경우 상담심리사에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문제의 스트레스보다는 교육 시간이나 과도한 업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직무 스트레스를 종사 기관별로 분석해보면, 청소년상담기관의 경우 낮은 보수(평균 1.9점)가 가장 심한 직무 스트레스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상담기관 종사자들의 평균 소득 수준이 낮은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한편 대학 관련학과 및 대학 내 상담소(평균 2.0점) 그리고 개업 상담소 종사자(평균 2.1점)는 사회적 인식 부

표 8. 직무스트레스(평균/점)

		공간	시설	기자재	상담의 업무과다	부적절 한업무	상담업 무과다	기관 성격	인간 관계	교육 비용	교육 시간
자 격 종	상담심리전문가	2.6	2.7	2.9	2.4	2.6	2.7	3.0	3.4	2.5	2.4
	상담심리사	2.5	2.4	2.6	2.5	2.6	3.0	2.9	3.2	2.1	2.2
	기타	2.1	2.2	2.4	2.9	3.0	3.1	3.1	3.0	2.0	2.3
	없음	2.8	2.8	3.0	2.6	2.7	3.2	3.2	3.3	2.8	2.7
종 사 기 관	청소년상담기관	2.7	2.6	2.9	2.2	2.5	3.2	2.9	3.4	2.4	2.1
	대학	2.6	2.7	2.9	2.5	2.7	2.8	3.0	3.5	2.3	2.4
	개업상담소	2.9	2.5	3.2	3.1	3.2	3.1	3.6	3.3	2.1	2.6
	초·중·고	1.5	1.9	2.2	1.8	1.8	2.5	2.7	2.9	2.1	2.1
	기업체	3.0	2.9	2.9	2.9	2.8	3.3	3.0	2.9	2.8	2.8
	기타	2.1	2.0	2.1	2.5	2.7	3.0	3.0	3.2	2.0	2.0
전체		2.6	2.5	2.8	2.5	2.7	3.0	3.0	3.3	2.3	2.4
		교육 내용	역할 갈등	내담자	상담 능력	상담의 한계	상담 결과	낮은 보수	고용/ 지위	인식 부족	미래 전망
자 격 종	상담심리전문가	3.0	3.1	2.9	3.1	2.9	3.5	2.5	2.4	2.2	2.6
	상담심리사	2.6	3.1	2.9	2.9	2.9	3.3	2.0	2.1	2.0	2.0
	기타	2.7	2.8	2.9	3.0	2.8	3.3	1.6	1.8	2.1	1.8
	없음	3.0	3.2	3.2	3.1	2.8	3.1	3.1	2.8	2.6	2.8
종 사 기 관	청소년상담기관	2.6	3.0	2.8	3.1	3.0	3.5	1.9	2.2	2.4	2.1
	대학	3.0	3.2	3.0	3.1	3.0	3.5	2.2	2.1	2.0	2.3
	개업상담소	2.7	2.6	3.1	2.8	2.9	3.1	2.4	2.7	2.2	2.6
	초·중·고	2.3	2.8	2.8	2.9	2.5	3.2	2.4	2.5	2.0	2.3
	기업체	3.0	3.2	3.0	2.9	2.8	2.9	2.8	2.7	2.7	2.7
	기타	2.5	3.2	2.9	2.8	2.6	3.2	1.6	2.0	1.9	1.8
전체		2.8	3.1	2.9	3.0	2.9	3.3	2.2	2.3	2.2	2.3

족에, 초·중·고등학교나 기타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상담실 등 공간 부족(평균 1.5점)과 기자재 등의 시설 부족(평균 1.8점)등 물리적 환경과 상담의 업무 과다와 부적절한 업무(각각 평균

1.8점)로 인하여 심한 직무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비하면 기업체 종사자들은 전반적으로 다른 기관 종사자들에 비해 직무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덜 느끼는 편인 것

으로 나타났고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지위, 사회적 인식의 부족, 미래 전망(각각 평균 2.7점) 그리고 교육에 따른 비용과 시간, 낮은 보수, 상담 자체가 가진 개입의 한계(각각 평균 2.8점) 등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상담전문가의 지식 영역

본 연구자가 상담심리전문가의 지식 영역으로 선정된 12개 영역은 다음과 같았다. ① 고급 심리학 이론 ② 심리 측정 평가 및 해석 ③ 일반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 ④ 특수 영역별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 (가족치료, 조직 내 상담, 진로 상담, 아동, 성 상담) ⑤ 집단 상담의 이론과 실제 ⑥ 심리통계 및 상담심리 연구 방법론 ⑦ 이상행동의 이해와 평가 ⑧ 상담 면접의 고급기술 ⑨ 상담의 교육 및 자문 방법(강의 및 슈퍼비전 등) ⑩ 대인관계 및 행동 양식의 이해 ⑪ 조직 내 관계에 대한 이해 ⑫ 각종 중독 및 비행 등에 대한 영역별 접근 방법이다. 이 12개 지식 영역 모두에 대해 응답자 60% 이상이 필요한 지식

영역으로 응답하였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응답한 영역이 심리측정평가 및 해석(88.4%)이었다(그림 1). 이는 연구자가 제시한 영역이 모두 상담 전문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영역임을 의미하며 상담전문가들이 심리측정과 평가의 직무를 많이 수행하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이 적어 그 필요성을 절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집단상담의 이론과 실제(86.6%), 상담면접의 고급기술(86.0%) 등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조직내 관계에 대한 이해(64.5%)와 고급심리학 이론(65.1%)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상담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식 영역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담심리사의 지식 영역으로 본 연구자가 선정한 11개 지식 영역은 다음과 같다. ① 심리학 기초 이론 ② 심리 검사 ③ 상담심리학 ④ 이상심리학 ⑤ 학습심리학 ⑥ 발달심리학 ⑦ 집단 상담 ⑧ 상담의 실제 ⑨ 상담연구 방법론 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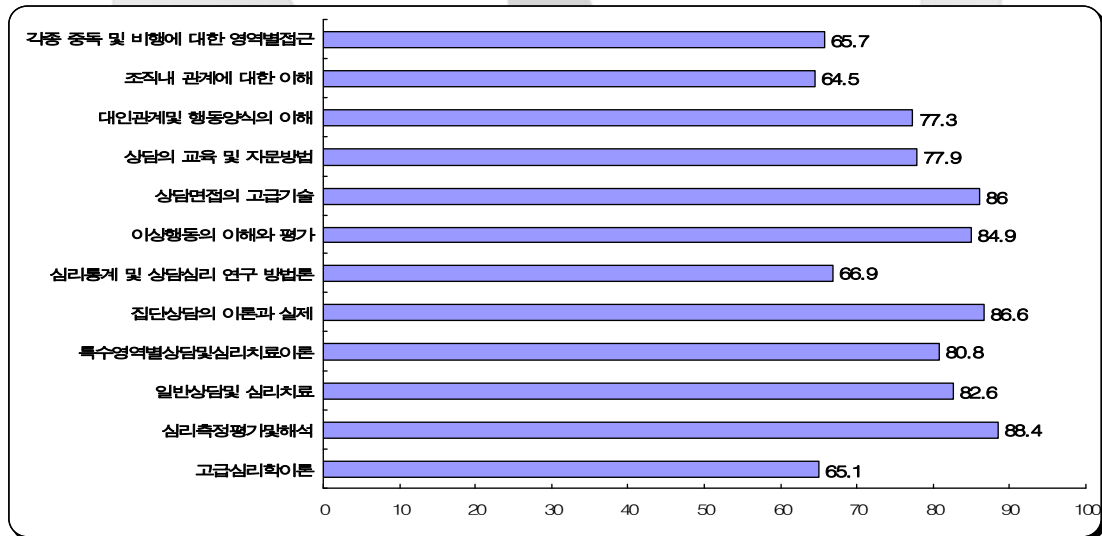


그림 1. 상담심리전문가 지식영역(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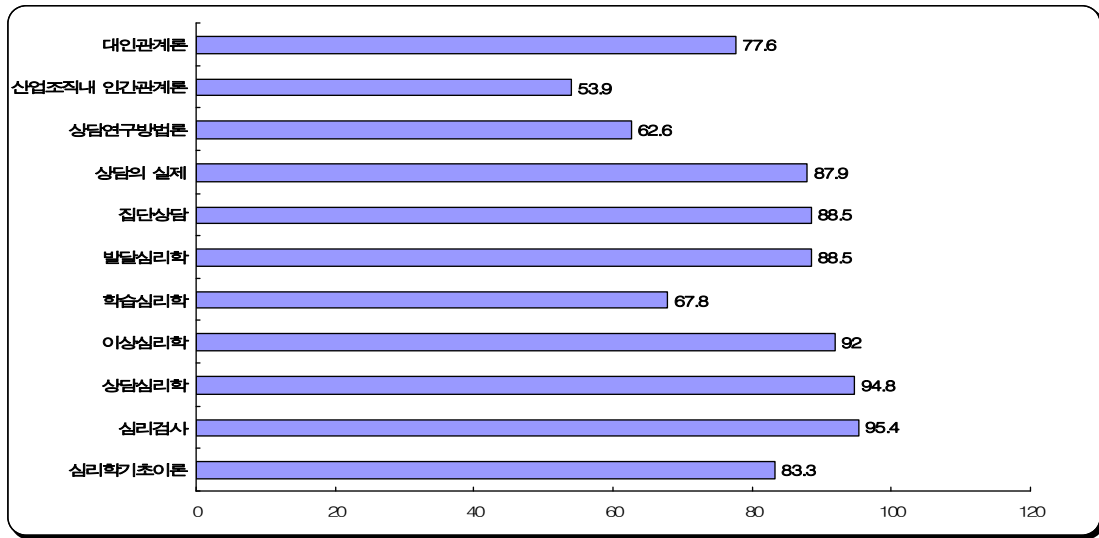


그림 2. 상담심리사 지식영역(중복응답)

산업조직 내 인간관계론 ⑪ 대인관계론이다. 그림 2를 보면, 11개 영역 모두에 대해 50% 이상이 필요한 영역으로 응답하였는데 이는 이들 영역이 상담전문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잘 선정된 지식영역임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상담심리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영역에서는 심리검사(95.4%)와 상담심리학(94.8%)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 상담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성격특성

상담전문가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성격특성에 대해 알아본 결과가 그림 3이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성격특성을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중복 응답하게 한 그 결과, 공감능력(69.1%)과 포용력(54.4%)을 꼽았다. 그 외에 성실성과 통찰력(각각 56%), 인내심(46.4%), 이타심(34.3%), 적극성(31.3%)을 꼽았고 봉사정신(25.9%) 응답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봉사정신 응답율이 낮은 것은 상담전문가들이 하는 활동을

봉사정신에서 기인하는 단순한 봉사활동으로 보기보다는 지식과 훈련을 갖추고 전문적 정신을 가지고 접근하는 활동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상담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능력특성

상담전문가가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특성으로는 통합 및 분석능력(66.2%)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또한 전문지식(57.4%)과 공감능력(51.5%)이 갖추어야 할 필수 능력특성으로 나타났다(그림 4). 통합 및 분석능력이 전문지식과 정서를 통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인지 능력이라고 볼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상담전문가의 중요한 능력 특성으로 이를 꼽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꼽은 능력은 전문 지식이었는데 이는 실제 상담 활동을 하고 있는 실무 종사자들이 전문 지식의 필요성을 매우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러한 능력은 전문적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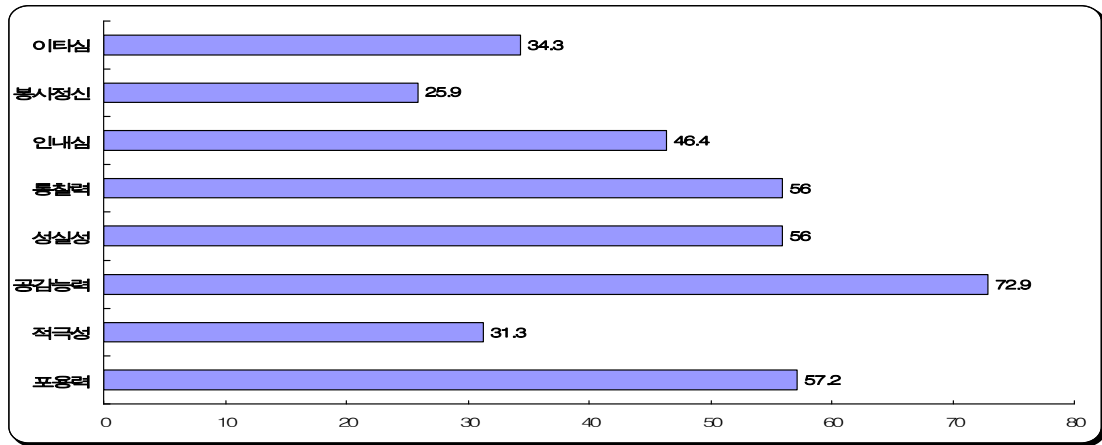


그림 3. 상담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성격특성(중복응답)

득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히 상담자 교육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그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은 공감 능력을 들고 있다. 이는 정서적인 부분으로서, 상담 활동에 있어 강의를 통한 지적 능력 뿐 아니라 엄격한 교육 훈련을 거쳐 전문가로서의 정서적 능력까지 배양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담자 교육 지도와 훈련에 있어서는 지적, 인지적, 정서적 능력이 고루 학습될

**상담전문가에게 필요한 보수 교육**

상담전문가가 효과적으로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보수 교육내용에 대해 질문한 결과 시급한 보수 교육내용은 전체의 36.6%가 응답한 개인상담실습이었다. 그 외에 성·진로·가족 상담 등 문제 영역별 상담(18.9%)과 아

표 9. 종사기관별 보수교육 내용 요구(%)

교육내용	개인 상담 실습	집단 상담 기법	집단 상담 실습	특수 기법	개인 상담 기법		
리더십	24.7	청소년상담기관	45.0	20.0	5.0	-	-
공감능력	51.7	대학	36.5	8.1	4.1	5.4	12.2
융통성	32.8	개업상담소	64.3	-	7.1	-	-
창의력	26.4	초·중·고	25.0	8.3	-	-	25.0
연구능력	27	기업체	33.3	6.1	3.0	3.0	12.1
전문지식	59.8	기타	22.7	-	4.5	9.1	18.2
대인관계능력	48.3	전체	36.6	7.4	4.0	4.0	11.4
통합및분석능력	74						
판단력	42						

그림 4. 상담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능력특성(중복응답)  
수 있는 내용과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동/청소년/노인 등 발달연령별 상담기법(13.7%)이



필요한 보수 교육내용이라고 응답하였다(표 9). 특히 개업상담소 종사자들이 개인상담실습을 꼭 필요한 보수교육 내용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상담전문가들이 실무를 경험할수록 개업상담소에서 전문적 능력 향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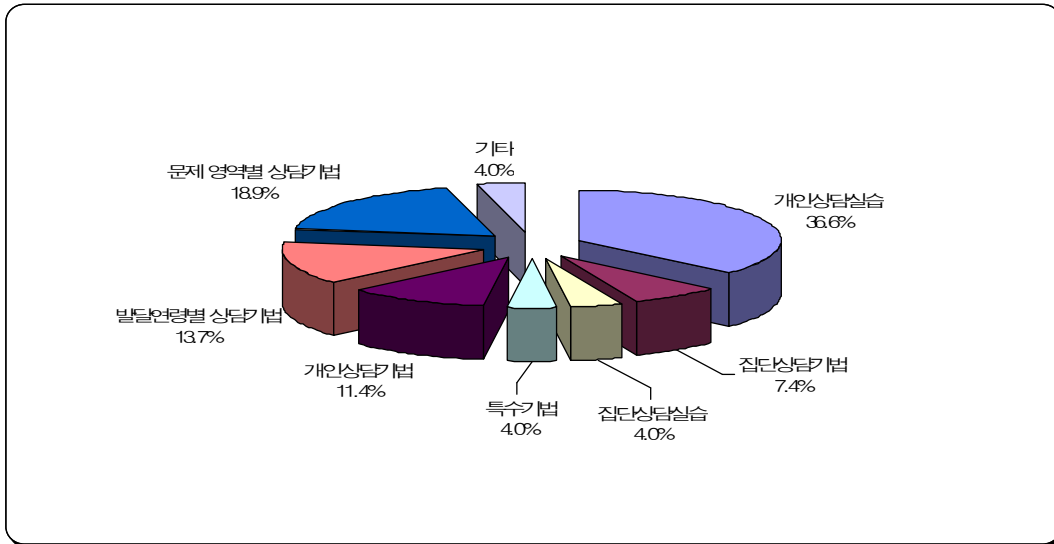


그림 5. 업무수행을 위한 보수교육 내용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성·진로·가족 상담 등 문제 영역별 상담기법이 가장 시급한 보수 교육내용으로 꼽았다. 이는 초·중·고등학교 현장에서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본 연구자가 제시한 보수 교육 내용 외에 기타 보수 교육 내용으로 필요한 것으로는 슈퍼비전, 상담의 윤리문제, 직업상담 등이 있었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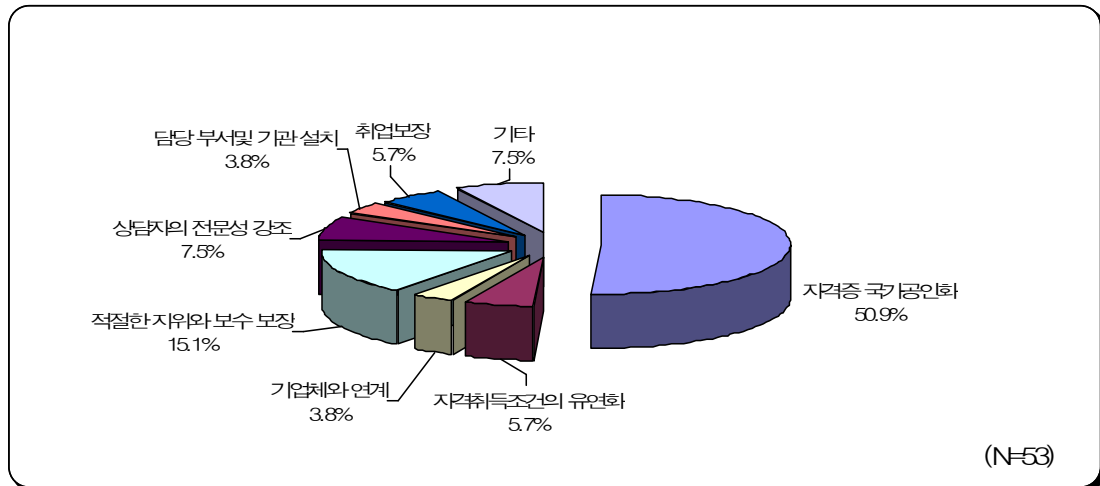


그림 6. 상담전문가 자격제도 활성화 방안

### 상담전문가 자격제도 활성화 방안

상담전문가 자격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자유로이 제언하도록 한 결과 절반 이상이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의 상담전문가 자격증 국가공인화 필요가 절실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국가공인화와 함께 상담전문가들의 적절한 지위와 보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그림 6). 이러한 응답은 대부분의 상담관련 종사자들이 상담전문가 자격증의 국가공인화를 통해 전문가 자격증의 공적지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을 함양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낮은 보수와 안정성 있는 지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담전문가가 사회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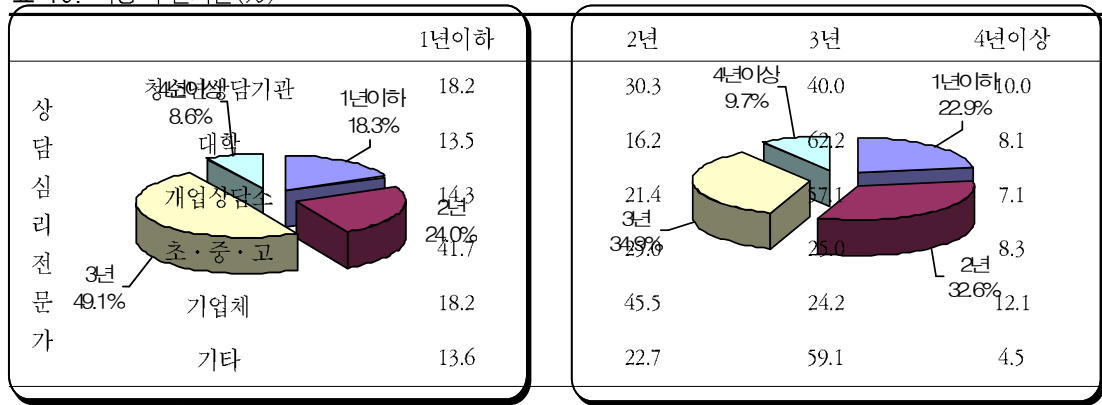
### 적정 수련기간

국가공인 상담전문가를 위해 적절한 수련기간에 대한 의견을 알아본 것이 표 10이다. 상담심리전문가자격 취득을 위하여 대학원 졸업이외에

어느 정도의 수련기간이 필요한가하는 질문에 49.1%가 3년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초·중·고등학교 근무자들은 수련기간을 1년 이하,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2년이라는 응답자들이 많았다(그림 7). 이러한 결과는 현재 종사기관에서의 직무로 인해 긴 수련기간에 부담을 느껴 좀 더 짧은 수련기간에 대한 희망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상담심리사 자격 취득을 위하여 대학 교육 이외에 어느 정도의 수련기간이 필요한가하는 질문에도 3년(34.9%)이 가장 높게 나왔다(그림 8). 종사 기관별로 살펴보면 청소년 상담기관 종사자의 경우 1년 이하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반면, 대학의 관련학과 및 대학 내 상담소 종사자들은 2년, 기업 상담소 종사자들은 3년이 심리사 수련기간으로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자격취득 규정이 대학 졸업 후 1년의 수련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학원 재학 중 혹은 졸업 직

표 10. 적정 수련기간(%)



대상	1년이하	2년	3년	4년이상
상담심리전문가	18.2	13.5	14.3	24.0
상담심리사	10.0	8.1	7.1	8.3
전체	18.3	24.0	49.1	8.6
청소년상담기관	45.0	20.0	35.0	-
대학	18.9	35.1	35.1	10.8
개업상담소	21.4	35.7	35.7	7.1
초·중·고	25.0	25.0	33.3	16.7
기업체	27.3	39.4	24.2	9.1
기타	9.1	27.3	50.0	13.6
전체	22.9	32.6	34.9	9.7

후 1년의 수련과정을 거친 후 상담심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적정 수련기간은 2-3년 정도가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상담소 종사자들이 수련기간을 보다 길게 보는 것은, 보다 전문적인 활동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 종사할수록 수련기간이 더 길어야 한다는 생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논 의

첫째, 직무 현황 및 수요조사 결과, 상담심리사 자격증 소지자의 지위는 전일제 상담원/연구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 시간제 상담원/연구원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상담분야 종사자의 월 평균 소득 수준은 51-100만원(16.6%) 응답률이 가장 높았는데 대부분이 대졸 이상(96.5%) 혹은 석사이상(81.6%)의 학위를 가지고 있음에 비하면 매우 낮은 임금 수준이다. 이는 상담자의 근무 조건이 매우 열악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시간제 상담원/연구원 비율이 3위로 높게 나타난 것이고 상담자의 고용 조건 안정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상담전문가의 활동 영역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상담자들이 안정된 고용 조건 속에서 적절한 지위와 보수 수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의 상담전문가들이 지적한 직무 스트레스 상황 중 특히 초·중·고등학교 상담관련 업무 종사자들은 시설 및 기자재 등의 부족을 들고 있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청소년 비행, 집단따돌림, 등교 거부 등의 문제에 일차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상담자들이 상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무 환경 개선이 시급함을 반영한다. 물리적 환경의 개선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국가적 뒷받침을 할

때 상담전문가의 고유 업무에 대한 인식도 바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상담전문가가 필요로 하는 지식 영역에 대한 응답 결과 심리측정 평가 및 해석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 교육에 있어서 다양한 심리측정 도구의 활용 및 해석 방법에 대한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상담자 교육 훈련 과정에 이러한 과목의 필요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효과적으로 상담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수 교육내용에 대하여 전체의 대다수가 개인상담실습을 들었다. 그리고 성·진로·가족 상담 등 문제 영역별 상담(18.9%)과 아동/청소년/노인 등 발달연령 상담기법(13.7%)을 필요한 보수 교육내용을 꼽았다. 한편, 초·중·고등학교 종사자들은 성·진로·가족 상담 등 문제 영역별 상담기법을 들었고 기타 수퍼비전, 상담의 윤리문제, 직업상담 등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보수 교육 내용 결정에 있어서 개인상담 실습의 다양한 방법, 또한 종사기관별로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상담전문가의 직무 내용이 국민의 정신 건강을 다루는 전문 분야인 만큼 엄격한 자격 관리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 즉, 철저한 자격 검정 절차를 통해 자격증을 발급하고 자격증 소지자의 보수 교육 등 전문적 능력의 향상을 위한 철저한 질적 관리가 요구된다.

여섯째, 상담자를 안정된 고용조건 속에서 그들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하여 상담전문가들이 심리상담, 지역사회 상담교육 및 예방, 심리측정과 평가, 기업체 자문과 교육, 상담교육지도와 자문 활동을 공신력 있게 할 수 있도록 국가공인화 등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계현 (1995). 적응영역별 접근 상담심리학. 서울: 학지사.
-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2002). <http://www.counseling.org>에서 2002. 12. 3. 인출.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2a). <http://www.apa.org/students/brochure/outlook.html>에서 2002. 12. 1 인출.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2b). <http://www.apa.org/students/brochure/subfields.html>에서 2002. 12. 1 인출.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2c). <http://www.apa.org/students/brochure/ready.html#accred>에서 002. 12. 1 인출.
- Gelso, C., & Fretz, B. (1992). Counseling Psychology. Orlando, FL: harcourt, Brace, Jovanovich <http://www.div17.org/education/difference.html>에서 2002. 12. 1 인출.
- Heppner et al (1992).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0, 107-122.(<http://www.div17.org/education/difference.html>에서 2002. 12. 1 인출).
- Olvey, C. D., Hogg, A., & Counts, W. (2002). Licensure Requirements Have We Raised the Bar Too Far?, *Professional Psychology : Research and Practic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33, 323-329.
- Roger, P. R., & Stone, G. (2002).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a clinical psychologist and a counseling Psychologist?(<http://www.div17.org/education/difference.html>에서 2002. 12. 1 인출).
- 원 고 접 수 일 : 2003. 3. 31  
수정원고접수일 : 2003. 5. 18  
게재결정일 : 2003. 6. 7

## The Role of Korean Professional Counselors and Job Analysis

Yoon-Mi Choi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is is to define the role of professional counselor in Korea. By the archival description of professional counselor, the counselor's role will be more clear and concrete. The five job area that professional counselor in Korea covers are: (1) counseling practice and psychotherapy, (2) community education and mental health prevention program, (3) psychological measurement, (4) education and counseling companies (5)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In the basics of these job description, the counselor's job is analyzed.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are counselors working in youth counseling center, university counseling center, private counseling center, various religious counseling setting, elementary · high school counselors, counseling related workers in industry. The results are : the status of licensed counselors of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mostly work as full-time counselor/researcher: mostly university graduate(96.5%) or MA degrees(81.6%), the average income is \$400-800, it is very low income comparing to average income in other job. The counselor's main job is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and they think the job is very important and vision in the job is positive. The most burnout factors doing counselor's job are lacking job importance of society and monetary problem. Continuous educating area they need mostly is practice of individual necessity of accrediting the license of Division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of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by government.

*Key Words* : professional counselor, counselor's role, counselor's main job, burnout factors of counselor